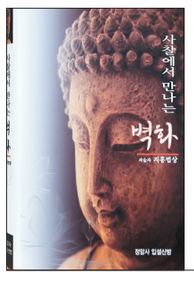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12/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3	아함전서 (전16권)	김윤수	운주사	8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인도 우화집)	류시화	더숲



〈마하승기율〉에 나오는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 모습. 오온에 집착하는 중생의 모습을 비유한 벽화. 출처 김해 정암사

벽화가 전하는 생생한 감동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
법상 스님 지음
5만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벽화가 곧 법문이다" 전국 순회
벽화 사진만 간추려도 340여 개
벽화, 경전으로 풀어 가치 재조명

벽화가 말하는 법문을 들어 본적이 있을까? 부처님 일생을 담은 내용부터 시작해 해학적인 옛이야기 까지 보기만 해도 벽화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벽화가 주는 궁금증이 공부로 이어지고 문화재 해설사의 짧은 설명이 긴 설법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시각적 효과로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벽화와 성당의 성화들은 글을 모르는 농민이나 천민에게 경전 혹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들은 현재는 오히려 예술 작품으로 가치를 더 인정 받을 정도이다.

하지만 성화와는 달리 벽화는 대접이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과 해외까지 돌아다닌 스님이 있다. 주인공은 김해 정암사 주지 법상 스님이다. 스님은 "벽화가 곧 법문"이라는 신념으로 전국 곳곳을 누볐다. 길게는 3일, 짧게는 하루 동안 숙소를 잡고 근처 모든 사찰은 빠짐없이 돌며 벽화 사진을 찍고 관련 경전을 찾아 연구했다. 당시 구입했던 차는 벌써 폐차 직전이 됐을 정도로 누볐다. 6년 전 시작 된 이 연구는 340여 벽화 이야기를 담은 책인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로 출간됐다.

법상 스님은 "벽화가 일러준 내용은 곧 경전인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검증이 안 된 경우가 많아 바로 잡고 싶었다"며 "벽화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사찰을 장엄하는 화석처럼 치부돼 생명력을 잃어 버려 다시 심폐소생 하는 심정으로 책을 기획했다"고 집필 의도를 피력했다.

법상 스님은 또한 벽화를 마주 할 때마다 전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극락전은 극락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관한 스토리를 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벽화 내용도 경전에 충실히 담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설명 했다. 지나친 구름 문양과 산수화 등을 엮은 도교풍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벽화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사찰 문화라 부처님 경전을 전하기 가장 좋은 도구인데, 연구하지 않는 자세가 벽화 문화를 사행길로 이끌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고 내용을 간추려 담아도 책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는 총 780페이지에 달하며 담긴 사진만해도 340장이 넘는다. 스님은 처음에 만화로 제작하고 싶을 정도로 쉬운 접근법을 구상했다. 쉬운 언어가 생명이란 의미이다. 책은 그래서 어느 누가 읽어도 쉽다. 특히 스님은 모든 벽화에 담긴 경전 내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짚고 밝혔다. 경전 뿐만 아니라 사찰 안내도 돼 있어 책을 보고 사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생생한 벽화의 느낌을 담기 위해 컬러로 제작해 제작비도 두 배 이상 들었다. 그래서 시중에는 300권 밖에 내놓지 못했다.

한편 1986년 월정사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경남 김해 정암사서 주지를 맡고 있으며, 네이버카페 '선재선재(善哉善哉)'를 운영중이다.



반야는 반야를 완성하고
송준영 지음
소명출판 펴냄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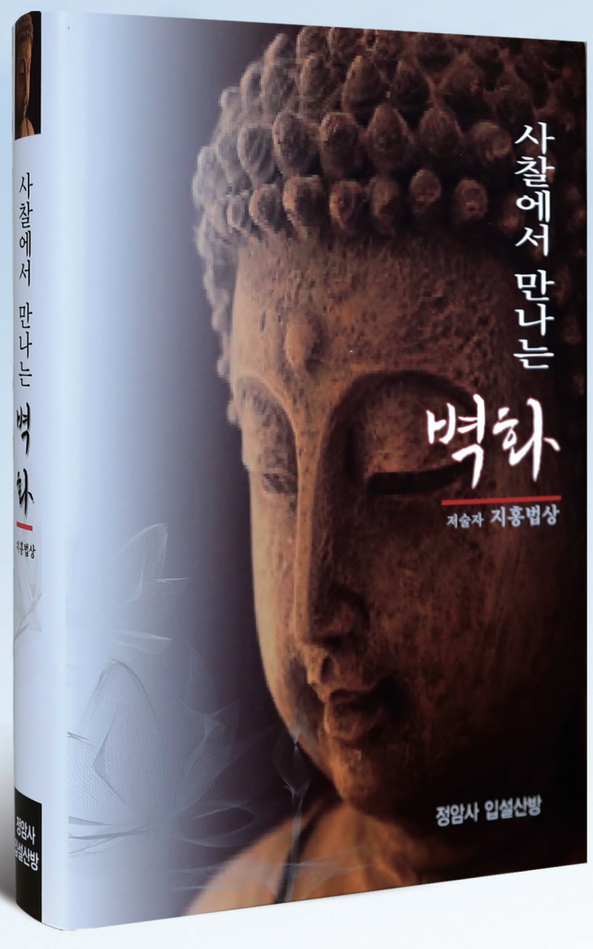
해설에 치우친 〈금강경〉 강해 틀 깨

〈금강경〉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승불교 골수인 무아, 즉 공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강반야바라밀' 이란 금강석(다이아몬드)과 같이 견고한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라는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반야, 즉 지혜를 이르는 말로 지혜로 지혜를 찾고자 한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 〈금강경〉은 석가모니 부처가 그 제자인 수보리와의 문답으로 이뤄진 경전인데, 석가모니는 이를 통해 공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졌으나, 구라마집에 의해 한역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붙였고, 그 중 5명의 해(解)가 붙은 〈금강경오가해〉가 함허 득통에 의해 편찬 되었다.

이 책은 함허 득통과 육조 혜능, 야보의 게송, 양나라 부대사(부흡), 예장 종경 등의 게, 송, 설 등을 필요에 따라 옮겨 역해했다. 책의 저자는 〈금강경오가해〉를 현대적 감각으로 축자 및 의역해, 〈금강경〉의 신비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게 하고자 했다.

설악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저자 송준영은 선시와 선문에 대한 다양한 논저를 통해 불교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이 책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월조 강해와 게송으로, 문자의 해석 및 해설론에 치우친 기존의 〈금강경〉 강해의 틀을 깨고자 했다. 이번 책은 〈금강경오가해〉에 녹아 있는 선사들 주석에 저자의 착어와 게송을 붙임으로써, 32분의 〈금강경〉이 지닌 공(空)사상의 신비를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제주에서 되추까지!

사찰에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벽화
때로는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면서 발품을 팔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340여 개의 벽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숨에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와 같은 책입니다.

벽화는 부처님 말씀을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올컬러 / 양장본 / 780쪽 / 값 50,000원 / 문의 010-4037-3539
농협 정암사 817101-51-067379